

인터뷰-최민호(경영학 1988) 동문

9



우리학교 교정을 거닐던 최 동문은 경찰관으로 다시 이곳을 찾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꿈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 다르더라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김동희 기자)



최 동문이 사건 일지로 빼곡한 경찰수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동희 기자)

회기동 대학생이 회기동 경찰관으로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한주현 기자 1hjii@khu.ac.kr

우리학교 캠퍼스를 누비던 대학생이 경찰관이 돼 회기동으로 다시 돌아왔다. 28년 차 베테랑 경위 최민호(경영학 1988) 동문의 이야기다.

삶이란 우연인 듯 운명과 같았던 선택의 연속

“나는 시작부터 첫발을 잘못 디딘 것 같아.”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밝은 첫 마디였다. 최 동문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성적에 맞춰 적성에 맞지 않는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지방에서 상경해 무료로 제공되는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고시반에 들어갔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던 최 동문은 함께 우리학교 캠퍼스를 누비던 간호학과 여학생과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나이는 벌써 서른이고 애도 둘이라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서른의 나이가 되도록 공부만 해

은 최 동문에게 운전면허증마저 없었다. 최 동문은 그때의 자신을 “사회적 장애”라 표현했다. 그렇게 학업과 생계 부양책임에서 방황하던 중 경찰 모집 공고를 발견한 것 역시 우연이었다. 최 동문은 “어깨가 무거워진 채로 꾸벅꾸벅 졸아오는데 고개를 드니 경찰 모집 공고가 딱 있더라”며 경찰 모집 공고문이 구세주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다시 우연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경찰의 길로 들어섰다. 어머니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았다. “순경 시키려고 서울에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다”며 모진 말을 하시던 그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직업을 갖게 된 최 동문은 “처음엔 상황에 의해 떠밀려 선택한 경찰이라 신념도 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경찰학교를 거치며 만난 동료와, 경찰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은 천천히 그를 진정한 경찰로 만들었다.

보안수사대부터 지하철수사대까지 진정한 경찰로의 탈바꿈

처음 발령받은 강북경찰서에서

최 동문은 24시간을 연달아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하는, 일명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며 “밤샘 및 훈련과 거절하기 힘든 술자리의 연속에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 동문은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활용해 경리 업무를 도맡기도 했다.

최 동문은 인상 깊었던 경험으로 7년간 근무했던 보안수사대에서 대공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꼽았다. 대공 업무는 우리나라에 침투한 북한 간첩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장 명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고 북·중 접경 지역으로 출장도 갔다. 그렇게 강북경찰서의 새내기 순경은 청와대를 경비하는 기동대, 대공 업무를 하는 보안수사대, 성범죄자들을 잡는 지하철 수사대를 거치며 어느덧 28년 차 경위로 거듭났다.

“처음 경찰이 됐을 때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경찰에게는 윤리 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과거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일대의 포주-경찰 유착관계를 수사하

며 얻은 깨달음도 전했다. “전날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에게 다음날 우리 경찰의 수갑이 채워졌다”며 윤리 의식이 없는 경찰은 언젠가 패가망신함을 강력히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경찰이라면 헌신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불안했던 청춘, 베테랑 경찰이 돼 회기동으로 회귀하다

지난 2월, 최 동문은 회기 파출소로 발령받아 그의 20대가 곳곳에 묻어있는 회기동으로 돌아왔다. 최 동문은 대학 시절 미성숙했던 본인의 이야기를 속스러운 듯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학교 정문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됐고 억울한 마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경찰관의 눈앞에서 찢어 던진 일화였다. 경찰관이 돼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경찰관이 떠오르더라”며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 그분은 너무도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

했다. 또한 “나도 이제는 그분처럼 성숙한 경찰관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나를 보는 듯한 학생들의 행동도 너그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 동문은 술에 취해 순찰차 밑으로 들어간 학생을 끌어내다가 팔을 다쳤던 일화를 더하기도 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술은 더 먹지 말라고 말해 달라”고 말하며 유쾌하게 웃어넘기는 모습이었다.

또한 최 동문은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다. 순찰을 위해 본관 뒷산에 오르거나 선동호를 돌 때면 지금은 부인이 된 대학 시절의 연인과 그곳을 거닐었던 추억이, 중앙도서관 앞을 지날 때면 동기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던 일상들이 어슴푸레 떠오른다고 했다. 최 동문은 이제 발걸음이 아닌 경찰차로 추억이 서린 그 장소들을 다시 찾고 있다.

쉬지 않고 달려와 이제는 우리학교를 보호하며 제2의 대학 생활을 보내는 최 동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어쩌면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 동문은 경찰직을 내려놓고 나면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을 다시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편입한 만학도이기도 하다. 최 동문은 후배들에게 “뭉툰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만이 위로 올라가는 법”이라며 “자신의 꿈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 다르더라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동문의 인생은 그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최 동문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그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 온 최 동문의 이야기는 사회가 재단한 삶을 좇기 바쁜 이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준다.